

# 누가복음 1장 37절 본문의 번역 연구

정창욱\*

## 1. 들어가는 말

『그리스어 신약』 네슬-알란트 27판은 누가복음 1장 37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ὅτι οὐκ ἀδυνατήσκει παρὰ τοῦ θεοῦ πᾶν ῥῆμα.

이 성경 원문을 『개역 한글판』, 『표준 새번역』(개정판 포함), 그리고 『공동번역』(개정판 포함)은 다음과 같이 각각 번역하고 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sup>1)</sup>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다.”

이 세 가지 번역본들 사이의 차이점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1) 똑같은 단어 ῥῆμα를 놓고 『개역 한글판』은 “말씀”이라고 번역한 반면에 나머지 두 번역은 “일”이라고 번역했다는 점; 2) 전치사 구 παρὰ τοῦ θεοῦ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라고 각각 번역되어 서로 상이한 것; 3) 『개역 한글판』(개정판 포함)에서 ὅτι는 “대저”<sup>2)</sup>로 번역되어 있으나 다른 번역본에는 이 단어의 번역이 빠져있다는 점.

한글 번역본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차이는 영어 번역본들에서도 나타날 만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은 서로간에 이러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ὅτι를 번역한다는 면에서는 『개역 한글판』 성경과 같으며, 위의 첫 번째 두 번째 항목과 관련해서는 『표준 새번역』이나 『공동번역』과 유사하다. 영어 번역본들의 표현은 전치사 구의 해석을 한글 성경보다 좀더

---

\* 총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1) 『개역 개정판』은 단지 “능치”를 “능하지”로 바꾸었을 뿐 다른 부분은 『개역 한글판』과 동일하다.

2) 이 단어의 의미와 『개역 한글판』(개정판)에서의 용법에 대해서는 아래 각주 6을 보라.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데, 다양한 번역본들을 대조해 보면 아래와 같다.

NIV Luke 1:37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KJV Luke 1:37 For with God nothing shall be impossible.

RSV Luke 1:37 For with God nothing will be impossible.

NRSV Luke 1:37 For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NKJV Luke 1:37 For with God nothing will be impossible.<sup>3)</sup>

WEB Luke 1:37 For with God nothing will be impossible.

RWB Luke 1:37 For with God nothing shall be impossible.

YLT Luke 1:37 because nothing shall be impossible with God.<sup>4)</sup>

위의 번역들은 모두 분명하게 “nothing”(일)이라고 ῥῆμα를 번역하고 있고, παρὰ τοῦ θεοῦ는 “with God”으로 번역하고 있다.<sup>5)</sup>

한글 성경들과 영어 성경들을 비교해 보면 미래 시상의 동사 ἀδυνατήσει를 한글 성경은 모두 현재로 번역한 반면에 영어 성경들은 NIV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래로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은 접속사 ὅτι를 번역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대저”라고 번역하고 있는 반면에<sup>6)</sup> 영어 성경들은 모두 예외

3) NASB도 NKJV와 동일하게 이 구절을 번역하고 있다.

4) Latin Vulgate판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quia non erit impossibile apud Deum omne verbum(왜냐하면, 어떠한 말씀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ῥῆμα를 “말씀으로”, 전치사 구를 “하나님께는”(“with God”)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동사는 미래로 번역하고 있다.

5) 대표적인 주석들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since nothing is impossible for God”(J.A. Fitzmyer).

“because nothing said by God can be impossible”(R.E. Brown).

Fitzmyer는 다음과 같이 직역을 제안한다.

“for not impossible will be word(or thing) with God.”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Anchor Bible(Garden City: Doubleday, 1981, 1990), 352. Brown은 히브리 단어의 이중 의미(double connotation)를 나타내기 위해 “th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또한 Fitzmyer처럼 그도 이 구절에 대한 직역을 제시한다.

“because not impossible will be every word(ῥῆμα) with God.” *The Birth of the Messiah: A Commentary on the Infancy Narratives in Matthew and Luke*(London: Geoffrey Chapman, 1977, rev. 1993), 292. 두 사람 모두 직역을 제시하면서 전치사 구를 “with God”으로 해석하고 있다.

6) 『개역 한글판』 성경에 이 단어는 “대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현대 독자들에게 분명하지가 않다. 국어 사전에도 이 말은 “헤아려 짐작컨대”, “무릇”등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한글 성경에서는 “왜냐하면”을 위해서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대저”의 의미가 현대인에게 어려운 이유 때문인지, 『개역 한글판』에 112번 나타났던 이 단어는 『개역 개정판』에서 45회만 사용되며, 그것도 잠언과 이사야에서만 쓰이고 그 외에는 오직 한번 눅 1:37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없이 “왜냐하면”(because, since, for)으로 번역하고 있다. 정리해 보면, 번역본들 사이의 차이점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1) ῥῆμα의 의미; 2) 전치사 구 παρά τοῦ θεοῦ의 의미; 3) 동사의 시상의 번역; 4) 접속사 ὅτι의 해석.<sup>7)</sup>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연 어느 번역이 원문에 더 가까운 것이며, 또한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하여야 그리스어 원문에 더 충실하고 가깝게, 그 원 의미를 살려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 본 논고의 목적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구절과 관련된 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보고, παρά τοῦ θεοῦ와 관련하여서 원문이 무엇이었는가를 결정한 후에 그 결정된 원문에 대한 올바른 문법적 번역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이 전치사 구문의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ῥῆμα의 의미를 밝히려고 시도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미래 동사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또한 문맥상으로 적합한지를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 2. 몸통 글

### 2.1. 어느 구절의 암시인가?

#### 2.1.1. 예레미야 32장 17절의 암시?

누가복음 1장 37절의 해석과 관련하여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것이 구약 성경의 암시라는 사실이다. 『네슬-알란트 27판』(NA<sup>27</sup>)의 옆 난외주(margin)에는 암시된 구절로 창 18:14가 제시되어 있으며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의 이 구절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다고 믿는다.<sup>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J. Nolland는 누가

단어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무릇”도 『개역 한글판』에서는 348번 사용되고 있으나, 『개역 개정판』에서는 106번만 사용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 두 단어의 대체 용어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7) 이 접속사의 의미는 너무도 분명하게 “왜냐하면”이므로, 특별한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접속사는 논의에서 제외된다.

8) F. Danker는 눅 1:37의 문장을 창 18:14의 의역(paraphrase)으로 간주한다(*Jesus and the New Age: A Commentary on St. Luke's Gospel* [Philadelphia: Fortress, 1988], 40). I.H. Marshall 또한 누가의 본문이 창 18:14에 의존한다고 주장하며(*The Gospel of Luke*. NIGTC [Exeter: Paternoster, 1978; rep. Grand Rapids: Eerdmans,

의 본문이 창 18:14가 아니라 렘 32:17의 히브리어 본문에 의존하고 있음을 증명하려고 시도한다.<sup>9)</sup> 그의 논의를 다루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만일 눅 1:37이 렘 32:17의 히브리어 원문을 암시한다는 그의 주장이 맞다면, 예레미야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대조하며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논의를 풀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sup>10)</sup> 이럴 경우에 예레미야서의 문장의 구조와 의미가 누가복음의 의미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Nolland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렘 32:17의 히브리어 본문이 창 18:14의 본문(הִיפְלֵא מִיְהוָה הַבֵּר)보다 눅 1:37에 가까운지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렘 32:17과 관련하여 그 구절의 마소라 본문(לֹא-יִפְלֵא מִיְהוָה כָּל-הַבֵּר)이 창 18:14와 비교해 볼 때, 눅 1:37과 다음과 같은 유사점들을 드러낸다는 것은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1) 예레미야에 있는 문장은 누가복음에 있는 문장과 같이 직설법인 반면, 창세기에 있는 문장은 의문문이다.

(2) 부정사 οὐκ와 대명사 πᾶν의 위치는 정확하게 예레미야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 אֵל과 כֹּל의 위치를 반영해 준다.<sup>11)</sup>

(3) 대명사 πᾶ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כֹּל이 예레미야서에서는 나타나는 반면에 창 18:14은 여기에 상응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의 문맥이 예레미야서의 문맥과 완전히 다르다는데 있다. 그래서 Nolland는 예레미야와 누가복음의 문장이 둘 다 금언적이었을 지도 모른다고 한발 뒤로 물러선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그 금언은 그리스어

1989], 72), F. Field는 누가의 본문이 “의심할 나위 없이 창 18:14(만일 그 구절의 인용이 아니라면)의 암시다”라고 단언한다(*Notes on the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9; rep. Hendrickson, 1994], 46). J. Jeremias는 1장 37절의 문장이 칠십인역 창 18:14의 자유로운 인용이라고 적고 있다(*Die Sprache des Lukas Evangeliums: Redaktion und Tradition im Nicht-Markusstoff des dritten Evangeliums*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0], 54). 이외에도 M. Wilcox의 *The Semitisms of Acts*(Oxford: Clarendon, 1965), 72, 각주 12를 보라.

9) J. Nolland, *Luke 1-9:20*. WBC 35a(Dallas: Word Books, 1989), 56.

10) 이 히브리어 본문은 칠십인역에서 렘 39:12에 번역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다. 렘 32:17이 암시구절이라면 논의는 온전히 히브리어와의 대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11) 이 그리스어 구문이 셈족어 구문을 그대로 드러내므로 이것이 Semitism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주장한다. οὐ πᾶς는 고전 그리스어 표현으로서(BDF 302. 2) 부정어(negative)가 대명사와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두 단어가 떨어져 부정사가 동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어 구문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Brown, *The Birth of the Messiah*, 292.)

가 아닌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다고 믿는다. 그는 어떤 경위로 이 본문이 쓰여졌던 간에 그 언어는 “셈족어적이며, 비-칠십인역적이며, 비-누가적”이라고 결론 내린다.<sup>12)</sup>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 이러한 주장을 더 분명하게 밝혀내는 학자는 Bock이다. 그는 렘 32:17의 מִמֶּנִּי, 소유격 명사를 가진 전치사 구문, παρά τοῦ θεοῦ에 더 가깝다고 주장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여격이 아닌 소유격 명사의 사용은 누가 뒤에 있었을 수도 있는 셈족어 원본의 존재를 반영해 준다고 보며 따라서 이 표현은 누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추론한다.<sup>13)</sup> 그러나, 눅 1:37의 문장이 렘 32:17의 문장에 근거하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결정적인 것은 누가복음의 문맥이 예레미야의 문맥과 다르다는 것이며, 백 번을 양보해서 Nolland가 주장하듯이 그 내용이 금언이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정된 언어로 된 금언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다른 구절들이 동일한 사상을 위해서 다른 표현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보여준다(욥 10:13 [LXX]; 42:2; 렘 32:27; 슥 8:6[참조. 마 19:16]). 이것은 어떤 저자가 다양한 표현들 중에 하나를 자신의 문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치사 구가 예레미야서에는 מִמֶּנִּי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παρά τοῦ θεοῦ로 되어 있어서 함께 쓰인 명사/대명사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만일 누가가 구약의 어떤 구절을 암시하고자 했다면, 문맥이 완전히 다르고 다른 전치사 구를 가진 예레미야 32:17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 2.1.2. 창 18:14의 인용: 어느 본문에 의존했는가?

더 심각한 문제는 눅 1:37이 창 18:14에 의존했는가 하는 것과, 의존했다면 그 의존한 본문이 히브리어 구약성경이었는지 아니면 그리스어 구약성경이었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면 이 문장의 해석에 얽힌 문제의 흐름과 핵심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논의의 편의상 창 18:14의 칠십인역과 눅 1:37을 먼저 비교해 보면 두 본문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12) Nolland와는 대조적으로 J. Jeremias는 눅 1:37에 있는 문장이 누가에 의해 편집되었다고 믿는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그의 책 *Die Sprache*, 54를 보라.

13) D.L. Bock, *Luke 1:1-9:50*. BECNT(Grand Rapids: Baker, 1994), 126, 각주 49번. Nolland는 이 전치사 구를 설명하면서, 그 소유격 명사를 “셈족어적 소유격”(Semitic genitive)이라고 부르고 있다(*Luke 1-9:20*, 40).

14) 창 18:14의 칠십인역과 눅 1:37의 그리스어 본문을 먼저 비교하고, 뒤에서 창세기의 칠십인역 본문과 히브리어 본문을 비교할 것이다.

a) 둘의 주제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나이 많은) 여성의 기적적인 임신, 곧 창세기에서는 사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엘리사벳과 마리아.

b) 두 문장 모두 부정어(negative)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다: 부정적인 답을 기대하는 질문임을 나타내는 μή는 창세기에, 직설법을 위한 부정어 οὐ는 누가복음에 사용.

c) ἀδυνατέω 동사가 두 문장 모두에 사용되고 있으며,<sup>15)</sup> 이 동사는 부정어와 연결되어 있다: 누가복음에는 οὐκ ἀδυνατήσῃ, 창세기에는 μὴ ἀδυνατέῃ.

d) 두 구절 모두 전치사 παρά와 명사 ῥήμα를 포함하고 있다.

e) 두 구절 모두 같은 명사 θεός를 전치사와 함께 쓰고 있다.

f) 두 문장의 기본 어순이 동일하다.

[ὅτι] οὐκ ἀδυνατήσῃ παρά τοῦ θεοῦ πάν<sup>16)</sup> ῥήμα

μὴ ἀδυνατέῃ παρά τῷ θεῷ ῥήμα.

따라서 눅 1:37은 문맥이 같을 뿐만 아니라 어휘도 유사한 창 18:14의 칠십인역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높다.<sup>17)</sup> 그렇다면 창 18:14의 원본인 히브리어 구약과 칠십인역 번역의 차이는 무엇이며 누가의 본문이 둘 중의 어느 구약 성경에 의존하고 있는가? 본 논고의 논의와 관련해 관심을 끄는 것은 P. Winter의 주장이다. 그는 전치사 구의 용법을 근거로 하여 눅 1:37이 창 18:14의 칠십인역이 아니라, 마소라 본문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누가복음의 전치사 구문, παρά + 소유격의 해석은 “from God”이어야 하며, 이것은 칠십인역의 표현 παρά + 여격과는 뜻이 아주 다른 반면에, 마소라 사본의 전치사 구 표현(מִן)과는 그 의미가 일치한다고 주장한다.<sup>18)</sup> 그가 제시한 영어 번역 세 문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5) Field에 따르면, 이 동사 대신 ἀσθενήσῃ나 ἀνεέργητον ἔσται가 쓰일 수가 있다. *Notes on the Translation*, 47. 동사 ἀσθενέω는 “약하다” “힘없다” 또는 “능력이 없다”를 의미하고, 형용사 ἀνεέργητον은 “활동하지 않는”(inactive) 또는 “효력이 없는”(inefficacious)을 의미한다.

16) Jeremias가 말한 대로, 누가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전형적으로 πᾶς를 덧붙인다(*Die Sprache*, 54). 따라서 누가는 자신의 개인적 문체의 취향을 따라 칠십인역 창 18:14의 문장에 이 대명사를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높다(눅 6:10, 17; 8:52; 9:1; 18:22; 21:29에서 πᾶς가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에 있는 이 구절들의 평행절들에서 πᾶς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17) J.A. Sanders는 이 구절과 관련해서, 눅 1:37의 어휘(wording)이 칠십인역 창 18:14의 하늘에서 온 방문자에 의해 말해진 어휘를 반복(duplicate)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Isaiah in Luke”, *Interpretation* 36(1982), 149.

18) “Some Observations on the Language in the Birth and Infant Stories of the Third Gospel”, *New Testament Studies* ns. 1(1954), 116.

눅 1:37 “Nothing [that comes] from God(=that has been caused by God) shall be impossible”

창 18:14의 마소라 본문: “Is anything [coming] from God wondrous?”

창 18:14의 칠십인역 본문: “Not impossible is to God a thing”(or “A word by God is not void”)

위의 문장 비교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누가복음의 전치사 구문의 해석이 창세기의 마소라 본문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Winter는 이러한 관찰에 근거해서 누가의 문장이 칠십인역이 아니라 마소라 본문에 가깝다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Winter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N. Turner는 우선 누가복음 본문과 칠십인역 본문 사이에 유사점들이 많음을 지적한다.<sup>19)</sup> 그리고 나서 그는 창 18:14의 히브리어 동사  $\text{אִשְׁרָיִם}$ 의 의미가 신 10:11과 렘 32:17, 27에서와 같이 “~에게 너무 어렵다”(to be too difficult for)라고 주장한다.<sup>20)</sup> 그에 따르면, 이 히브리어 동사가 칠십인역 창 18:14의 그리스어 동사보다 누가복음의 동사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내주는 것은 아니다. 칠십인역의 번역은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를 잘 드러내 주고 따라서 그 문장의 의미를 잘 전달해 준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너무 어렵지 않다”(“nothing is too difficult for God”).

결과적으로, 누가복음의 본문이 칠십인역보다 마소라 본문에 더 가깝다는 주장은, 두 구약 본문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설득력이 없다.

## 2.2. 전치사 구 연구

### 2.2.1. 누가 본문과 칠십인역 본문의 차이

위에 언급한 Turner의 주장이 옳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른 문제가 남아 있다. 그것은 곧 누가복음의 본문이 칠십인역하고는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두 본문은 다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누가의 본문이 구약의 인용이 아니라 구약의 암시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인용에서조차도 문맥에 따라 그 인용된 본문을 바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암시에서는 더 손쉽게 문맥에 맞추어 내용을 바꿀 수 있다.<sup>21)</sup> 그렇다면 누가복음과 칠십인역의 이 두

19) 두 본문 사이의 유사점들에 대해서는 앞을 보라.

20) “The Relation of Luke I and II to Hebraic Source and to the Rest of Luke-Acts”, *New Testament Studies* ns. 2 (1955), 102.

본문은 서로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 Winter의 주장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은 전치사 παρά가 여격을 취하느냐 또는 소유격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 전치사가 소유격과 함께 쓰이면 “~로부터”(from)라는 의미로 쓰이고, 여격과 함께 쓰이면 “~에게”(with 또는 for)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을 Turner 또한 부인하지 않는다. 『네슬-알란트 27판』 본문에는 이 전치사 뒤에 소유격 명사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구문을 거의 모든 영어 번역 성경들이 “with”로 번역한다. 한글 성경 중에서는 『개역 한글판』(개정판) 성경만이 “from”에 가까운 의미로 번역하고, 『표준 새번역』(개정판)은 영어 성경과 비슷한 의미로 해석하며 『공동번역』(개정판)은 의역을 하고 있으나 그 의미가 영어 성경들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소유격과 함께 쓰이는 전치사 παρά의 해석은 여격과 함께 쓰일 때와 같은 뜻을 가지므로 대부분의 영어성경과 한글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일까?

BAGD에 따르면,<sup>21)</sup> 이 전치사가 소유격과 함께 쓰이면 “the one who originates or directs”를 의미해야만 한다.<sup>22)</sup> 그런데, 영어 성경번역들은 말할

21)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3장 5절의 구약인용에서 나타나는데 그 구절에서 인용되고 있는 구절인 이사야 40장 4절은 누가에 의해 문맥에 맞게 수정이 가해진다. 두 구절을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누가복음 3:5- ἔσται τὰ σκολιὰ εἰς εὐθείαν καὶ αἱ τραχεῖαι εἰς ὁδοὺς λείας·

이사야 40:4- ἔσται πάντα τὰ σκολιὰ εἰς εὐθείαν καὶ ἡ τραχὺς εἰς πεδία

결정적인 차이는 밑줄 친 단어의 단수와 복수가 각각 쓰여졌다는 것이며, 이것은 누가의 작업이었음에 틀림없다. D.S. New의 주장대로, 누가의 본문은 “πάντα의 생략과 자신의 문체를 따라 αἱ τραχεῖαι로 바꾼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 있어 너무나 칠십인역에 가까워서 어떤 다른 자료를 사용했을 수 없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New의 *Old Testament Quotations in the Synoptic Gospels and the Two Document Hypothesis. Septuagint and Cognate Studies* 37(Atlanta: Scholars Press, 1993), 45를 보라. 또 다른 예가 행 3:22에 나타나는 신 18:15의 인용인데 그곳에서도 문맥에 맞게 인용된 구절이 변경되었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J.G. Steyn의 *Septuagint Quotation in the Context of the Petrine and Pauline Speeches of the Acta Apostolorum*(Kampen: Pharos Publishing House, 1995), 143-46을 보라.

22) BAGD는 다음 저서의 약자로서, 원저자, 번역자, 편집자들의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으며 신약 서적에서 흔히 발견된다. W.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trans. W.F. Arndt & F.W. Gingrich; rev. F.W. Gingrich & F.W. Dank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6, 1979).

23) 흥미롭게도, BAGD는 한편으로는 παρά와 관련하여 이 전치사가 소유격과 함께 쓰이면 “from”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설명하고(609쪽), ἀδυνατέω와 ῥῆμα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눅 1:37의 전치사 구문을 “with God”으로 해석하고 있다.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각각 19쪽, 735쪽).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전치사가 여격과 함께 쓰일 때, 여격 홀로 쓰이는 것과 의미가 같음을 지적하면서(“~

것도 없고 한글 성경들 중에 개역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에 의존하여 번역한 것처럼 보인다.

1) 전치사 παρά는 여격과 함께 쓰이든 소유격과 함께 쓰이든 서로 같은 뜻을 갖는다고 보거나; 2) “하나님께는”(“with God” 또는 “for God”)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표현 παρά τῷ θεῷ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 사본들이 소유격 명사를 가진 사본들보다 더 믿을 만 하다고 보든지; 3) 명사 ῥῆμα의 의미에 대한 그들의 결정이 이와 같은 전치사 구의 해석으로 이끌었을 수가 있다.

세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영어 번역본은 물론 한글 성경 가운데서 전치사 구를 “하나님께”로 해석한 『표준 새번역』은 이 명사를 “말씀”(word)이 아니라 “일”(thing)로 번역하고 있다. 또한 『표준 새번역』과 비슷한 의미로 의역한 『공동 번역』도 “일”로 해석하고 있다. 그 반면에 이 단어를 “말씀”으로 해석한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에는 전치사 구가 “하나님의”(말씀)라는 다소 모호하지만 그래도 “from God”에 가깝게 번역되어 있다.<sup>24)</sup> 그리고, 이 전치사 구는 『옛 미국 표준 번역본』(*Old American Standard Version*)에서 “from God”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ῥῆμα는 “word”로 번역되어 있다. “For no word from God shall be void of power.”<sup>25)</sup> 또한 주석가들 중에서 J.B. Green도 분명하게 이 문장을 “For no word from God will be impossible”로 번역하고 있다.<sup>26)</sup> 이것은 이 명사의 해석이 전치사 구의 해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2.2.2. 전치사 구의 원문 결정

---

에게”), BAGD는 눅 1:37의 παρά + 여격을 지지하는 사본들의 독법을 그 예로 제시하고 있다(610쪽). 이것은 누가복음 본문의 해석의 미묘함을 드러내준다. BADG의 새로운 개정판인 BDAG도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ἀδυνατέω(22쪽), παρά + 소유격(757쪽), ῥῆμα(905쪽).

24) “하나님으로 부터”라는 말은 출처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로 번역할 수 있다. BAGD의 전치사 παρά 항목의 I.4.b 항목을 보면 이 전치사 구문을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610쪽).

25) 이 본문을 *New English Bible*은 “for God’s promise can never fail”로 번역하고 있고, *Living Bible*은 “For every promise from God shall surely come true”로 적고 있다. 이 두 번역은 OASV나 아래에서 제시되고 있는 J.B. Green의 번역에 가깝다.

26) J.B. Green, *The Gospel of Luke*. NICNT(Grand Rapids: Eerdmans, 1997), 82. Green의 이와 같은 해석은 그가 이 주석을 위해서 *NRSV* 성경 본문을 사용하면서 본문 비평상의 문제나 번역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NRSV*를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단순히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는 이 문장의 앞부분이 본문 비평적 입장과 번역상의 입장에서 볼 때 “no word from God”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내 비치고 있는 것이다.

전치사 구에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그 원문을 결정하는 일이다. 원문의 결정이 전치사 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믿을만한 사본들 중 몇 개는 『네슬-알란트 27판』의  $\pi\alpha\rho\acute{\alpha}$  τοῦ θεοῦ 대신에  $\pi\alpha\rho\acute{\alpha}$  τῷ θεῷ라고 이 전치사 구를 기록하고 있다. 외적 증거(external evidence)는 결정적인 것은 아니나 네슬 알란트 27판의 독법(reading)을 지지해 준다.  $\kappa^2$  A C Θ ψ f(1) 13 33은  $\pi\alpha\rho\acute{\alpha}$  τῷ θεῷ를 지지해 주는 반면에,  $\kappa$  B D L W  $\Xi$  565 pc는  $\pi\alpha\rho\acute{\alpha}$  τοῦ θεοῦ라고 읽고 있다. 여격이 뒤따르는 전치사 구의 독법을 지지해 주는 사본들의 분포를 근거로 이 독법이 더 믿을 만 하다는 주장이 가능하지만,<sup>27)</sup>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본계통의 짝인 고대-알렉산드리아 계통의(Proto-Alexandrian)  $\kappa$ 와 B와 서방 계통의(Western) D가 소유격을 지지해 주므로, 외적 증거는 소유격의 독법을 지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내적 증거(internal evidence)는 더 분명하게 여격이 아니 소유격을 지지해 준다.  $\pi\alpha\rho\acute{\alpha}$  τοῦ θεοῦ라는 전치사 구가 사본 필사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코이네(Koine, 또는 헬라시대[Hellenistic]) 그리스어에서 전치사  $\pi\alpha\rho\acute{\alpha}$ 가 소유격 τοῦ θεοῦ와 함께 쓰이면 “from God”을 의미하는 반면에, 사본 필사자들은 문맥이 “with(또는 for) God”을 요구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마도 누가 본문의 의미가 전치사와 함께 쓰인 소유격에 의해 부자연스럽게 되었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전치사  $\pi\alpha\rho\acute{\alpha}$ 가 LXX의 창 18:14에서와 같이 여격과 함께 쓰여야만 한다고 필사자들이 생각했을 가능성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독법을 선호하는 원 독법 판단 기준(*lectio difficilior*)과 평행 본문에 맞게 조화를 이루도록 고쳐졌을 가능성이 없는 독법이 더 옳다는 조화의 원리(*canon of harmonization*)<sup>28)</sup> 둘 다  $\pi\alpha\rho\acute{\alpha}$  τοῦ θεοῦ가 더 믿을 만한 독법임을 지지해 준다.<sup>29)</sup> 사본 필사자들이  $\pi\alpha\rho\acute{\alpha}$  τοῦ θεοῦ를  $\pi\alpha\rho\acute{\alpha}$  τῷ θεῷ로 고칠 이유가 없었던 반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날 이유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함께

27) Bock은 그의 주석 *Luke 1:1-9:50*, 131에서 여격을 지지하는 사본들이 더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므로, 여격이 틀림없이 원래의 본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28) “Harmonization”과 관련하여서는 G.D. Fee가 E.J. Epp과 함께 쓴 책, *Studies in the Theory and Method of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Grand Rapids: Eerdmans, 1993)의 9장에 있는 G.D. Fee의 논문 “Modern Textual Criticism and the Synoptic Problem: On the Problem of Harmonization in the Gospels”, 174-82를 참조하라.

29) 이 부분의 본문 비평학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의 오랜 동료인 신현우 박사가 유용한 의견을 제시해주었다. 그의 호의에 진심어린 감사를 표한다.

παρὰ τοῦ θεοῦ를 지지해 줌으로 παρὰ τοῦ θεοῦ가 원 독법일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만일 원문이 παρὰ τοῦ θεοῦ라면, 이 전치사 구는 “하나님으로부터”(from God)로 해석하여야 한다.

### 2.2.3. 전치사 구의 의미 결정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전치사 παρὰ는 여격과 함께 쓰이든지 소유격과 함께 쓰이든지 동일한 의미를 전달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Marshall은, 이 전치사가 소유격 θεοῦ와 함께 쓰이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를 의미해야 한다는 Tasker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 전치사가 소유격과 함께 쓰일 때 “~에게”(for)를 의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Luke, 72). 그는 그 전치사의 의미가 너무도 유연해서 소유격 명사와 쓰여도 “for”를 의미할 수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예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sup>30)</sup>

더 최근의 주장은 Bock에 의해 제기되었다(Luke 1:1-9:50, 131). 그는 이 전치사를 둘러싼 논쟁에서 생기는 혼동의 원인이 명사 ῥῆμα의 이중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이 문장이 창 18:14을 반영해 줌으로 ῥῆμα가 이중 의미(double connotation), 곧 “말” 또는 “일”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דבר의 번역이고, 따라서 전치사가 어떤 격의 명사를 취하든지 간에 이 문장은 동일하게 해석된다는 것이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그의 주장은 그 중심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 명사가 이중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왜 전치사 παρὰ가 같이 쓰인 명사의 격에 상관없이 뜻이 같아야 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παρὰ가 소유격과 함께 쓰일 때 이중 의미를 갖는다면(“from”이나 “with”)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을 것이나 그는 명사 ῥῆμα의 이중 의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명사가 이중 의미를 갖는다 할지라도 전치사 παρὰ가 무슨 격을 취하든 상관없이 뜻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sup>31)</sup> 따라서 Bock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만일

30) S.E. Porter도 그의 저서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167에서 이 전치사가 소유격과 쓰이면 “from”을, 여격과 쓰이면 “with”를 나타낸다고 적고 있으며, 어떤 예외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1) Bock의 주장을 따라 두 종류의 문장을 비교해 보자. 먼저 여격명사인 것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는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 또는 “하나님께는 어떤 말씀도 불가능하지가 않다.”

누가가 창 18:14의 의미 곧 “Is anything impossible with God?”이라는 뜻을 전달하고자 했다면 그는 틀림없이 칠십인역에 있는 독법(reading)을 따랐을 것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도, 전치사 παρά가 소유격과 함께 쓰이면 예외 없이 언제나 “from”을 의미했다. (눅 8:49; 행 2:33; 3:2; 7:16; 9:14; 10:22; 17:9; 20:24; 26:10; 28:22.)<sup>32)</sup> 그 반면에 이 전치사는 여격과 함께 쓰이면 언제나 “with”나 “for”를 의미했다. (눅 18:27; 19:7; 행 9:43; 10:6.) 이러한 사항 자체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3-24장과 사도 행전에서와 누가복음의 유아기 기사에서 그리스어의 용법이나 의미가 서로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눅 1:37에도 그런 예가 또 하나 나타난다. 그것은 바로 명사 ῥῆμα의 용법이다.<sup>33)</sup>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칠십

이 두 문장은 히브리어 명사의 이중의미를 생각할 때, 서로 의미가 같으나, 이 두 문장과 다음의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 서로 뜻이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오는 모든 일은 불가능하지 않다”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불가능하지 않다.”

32) 전치사 παρά와 소유격 명사 θεοῦ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사도행전을 제외하고는 요한복음에서만 5번 나타나는데, 그 모든 곳에서도 이 전치사 구는 “하나님으로부터”(from God)라는 뜻을 갖는다(5:44; 6:45,46; 8:40; 16:27). 그 반면에, 이 전치사와 명사의 여격 θεῷ의 사용은 신약 전체에서 8번 나타나는데, 그 모든 곳에서 이 전치사 구는 “하나님께는”(for or with)이라는 뜻을 전달한다(막 10:27; 눅 1:30; 18:27; 롬 2:11,13; 9:14; 고전 3:19; 갈 3:11). 이 구절들 중에서 특별히 주목을 끄는 것은 누가복음의 두 구절과 마가복음에 있는 구절 그리고 롬 9:14이다. 눅 1:30의 예는 우리가 다루는 본문과 동일한 문단 안에 있기 때문이고, 나머지 세 구절은 그 내용이 우리가 다루는 본문과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1:30은 뒤에 본문에서 다루어질 것이므로, 18:27을 보면 다음과 같다.

ὁ δὲ εἶπεν, Τὰ ἀδύνατα παρὰ ἀνθρώποις δυνατὰ παρὰ τῷ θεῷ ἐστίν.

그러자, 그가 말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들은 하나님께는 가능한 것들이다.”

의미상 눅 1:37과 더 가까운 문장은 막 10:27에서 발견된다.

Παρὰ ἀνθρώποις ἀδύνατον, ἀλλ’ οὐ παρὰ θεῷ· πάντα γὰρ δυνατὰ παρὰ τῷ θεῷ.

사람들에게 (그것은)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롬 9:14도 유사한 뜻의 문장을 포함하고 있다.

μὴ ἀδικία παρὰ τῷ θεῷ.

하나님께 불의한 것들이 있는가?

이 모든 예들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결코 “with God” 이나 “for God”이라는 의미를 위해서 παρὰ τοῦ θεοῦ를 쓰지 않고 παρὰ τῷ θεῷ를 썼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누가는 물론 모든 신약의 저자들이 이 전치사와 격의 사용을 분명하게 뜻에 맞추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이 단어는 신약에서 나타나는 68번 중 누가복음 3-24장과 사도행전에서 24번 나타나는데 하나의 예(5:32)를 제외하고는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인역의 영향에 의해 발생한 일이라는 설명으로 쉽사리 해결된다. 이중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명사 **נָכַר**를 칠십인역에서 번역할 때 그 이중 의미를 담기 위해 *ῥήμα*를 사용했고 칠십인역의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는 누가복음의 유아기 기사에 그 영향이 나타나 있다고 보면 설명이 된다. 하지만, 전치사 *παρά*의 경우는 소유격과 쓰여 “~에게”를 의미하는 용법을 설명할 길이 없다. 칠십인역은 물론 고전 그리스어 문헌에서도, 또한 그 어떤 그리스어 문헌에서도 이 전치사는 소유격과 함께 쓰여서 “with”나 “for”의 뜻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 중에 하나는 창 18:14의 히브리어 본문이 누가로 하여금 소유격의 사용을 강요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 이유는 히브리어본문이 칠십인역보다 누가복음의 본문의 의미에 더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위에서 살펴본 Turner의 주장대로,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이 경우에 전치사 구 *παρὰ τοῦ θεοῦ*의 의미는 “with God”이 아니라 “from God”이어야만 한다.<sup>34)</sup> 누가 복음의 본문에서 전치사 *παρά*가 소유격 명사와 함께 LXX의 창 18:14의 여격 명사가 쓰인 전치사 구와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쓰여졌다고 보기 힘들다. 소유격과 함께 쓰여 “with God”을 나타내는 전치사 구문의 용법은 칠십인역과 더 중요하게는 고전 그리스어와 헬라시대(Hellenistic) 그리스어의 용법과도 틀리기 때문이다. 고전 그리스어와 헬라시대 그리스어에서 이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소유격은, 만일 그렇게 쓰인다면, 아주 드물게 여격 대신 쓰이기는 하지만, 심지어 이 경우에도 그 의미는 “with”가 아니라 “by”나 “near”이다(Liddell and Scott, 1302). 게다가, 전치사 *παρά*는 누가복음 1-2장에서 1장 37절을 제외하고 네 번 사용이 되는데 그 예들에서조차도 여격과 함께 쓰이면 “with”나 “in the presence of”라는 의미를 갖고(1:30; 2:52), 소유격과 쓰이면 “from”을 의미하고 있다(1:45; 2:1). 다시 말해, 그 전치사가 소유격과 함께 “with God”을 나타내는 것은 누가복음 1-2장의 문체와도 틀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려 사항들은 누가복음의 본문이 소유격과 함께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을 의미하기 위해 의도되었다는 주장을 가능성이 적게 만든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반면 유아기 기사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균등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단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아래를 보라.

34) Turner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를 보라. 역설적이게도 히브리어 본문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번역할 때는 “for God” 또는 “with God”이라고 번역한다.

1) 누가복음의 전치사 구는 본문비평학상 여격이 아니라 소유격 명사를 가지고 있다; 2) 그 경우에 전치사 구의 의미는 “from God”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누가 “with God”이나 “for God”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소유격 명사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3) 명사 ῥῆμα가 이중 의미를 갖는다고 해서 전치사가 소유격을 취하든 여격을 취하든 의미가 같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생각할 것은 이 명사 ῥῆμα가 이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하는 문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들은 이 단어를 “말씀”이 아니라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치사의 뜻을 그 단어의 뜻에 맞추는 인상을 준다. 다시 말해 이 명사의 뜻이 “일”이므로,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로 문맥이 요구한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눅 1:37에서 과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

### 2.3. ῥῆμα의 의미

신약 성경에서 68번 사용되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사도행전 이외의 책에서 쓰이면, 언제나 “말”을 의미한다. 물론, 이 단어가 마 18:16과 고후 13:1에 “일”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는 하지만(BAGD, 735쪽), 그 둘 모두 구약성경 신 16:15의 인용이다.<sup>35)</sup> 이 단어가 24번 나타나는 누가복음 3-24장과 사도행전에서의 이 단어의 용법은 어떤가? BAGD에 따르면, 이 단어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일”이라는 의미로는 행 10:37(단수)과 5:32 그리고 13:42(복수)에서만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 구절들 중 첫 번째와 세 번째에서 이 단어의 의미는 “일”이라기보다는 “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거나 최소한 “일”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다.<sup>36)</sup> 두 번째만 “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것은 셈족어로 말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

35) 마 18:14를 번역하면서, KJV(NKJV포함)과 RSV(NRSV포함)는 이 명사를 “말”(word)로 번역하고 있는 반면에 NIV는 “일, 사건”(matter)라고 번역하고 있다. 또한 고후 13:1의 경우에는 KJV(NKJV포함)는 “말”(word)로 RSV(NRSV포함)는 고소(charge)로 해석하며, NIV는 “문제”(matter)로 번역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명사가 이 구절들에서 두 가지 의미를 다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36) 행 10:37에서 NIV를 제외한 모든 영어 성경은 ῥῆμα를 “말”로 해석하고 있다. τὸ γινόμενον ῥῆμα καθ' ὅλης τῆς Ἰουδαίας. 성경 원문이 만일 『네슬-알란트 27판』에 있는대로 36절에서 관계대명사 ὅν을 포함하고 있다면 36절의 τὸν λόγον을 이 명사가 동격으로 받는 것으로 보아, “말”로 해석해야 한다. γίνομαι동사는 소유격 명사와 쓰인 κατά와 함께 사용되어 “go, come”을 의미하며 이때 문맥에서 이 부분은 “the message that has spread throughout all Judea”를 의미한다(BAGD, 160).

도들과 유대인 공회와 대제사장과의 대화 속에 나오며, 그 의미도 반드시 “일”은 아니고 “말”로 해석할 수도 있다. 비록 “일”을 의미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만, 두 가지 뉘앙스를 다 가지고 있다. 어쨌든,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오직 한두 구절만 제외하고는 모든 구절에서 “말”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일”이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에도 “말”로 해석함이 가능하며, 문맥이 그 마지막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단어는 누가복음의 유아기 기사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유아기 기사에서 1장 37절을 제외하고 8번 나타나는 이 명사는 때로는 “일”(1:65; 2:15, 19, 51)을 의미하나, 이런 용법은 “말”이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들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1:38; 2:17, 29, 50). 주목할 것은 이 명사가 한 문단 안에 두 번 나타나고 서로 다른 의미를 전달할 때는 명확하게 설명된다는 것이다.

περὶ τοῦ ῥήματος τοῦ λαληθέντος “말하여진 말 [메시지]”(2:17)과 τὰ ῥήματα ταῦτα “이 모든 일들”(2:19). 2장 51절과 52절도 똑같은 차이를 드러낸다. τὸ ῥήμα ὃ ἐλάλησεν αὐτοῖς “그가 그들에게 (말)한 말”(50절); πάντα τὰ ῥήματα(51절) “이 모든 일들”.

누가복음 1장 37절로 돌아와서, 이 명사는 바로 다음 구절인 38절에도 나타나며 둘 모두 어떠한 수식어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두 명사는 동일한 의미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으며, 38절에서 이 명사는 분명하게 “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찰은 저자인 누가가 두 구절에서 이 명사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도록 의도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물론, 명사 ῥήμα가 37절에서 히브리어에 있는 이중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은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 단어는 2:17과 2:50에서와 같이 “일”보다는 “말”로 번역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전자는 “행위나 문제”의 측면에 강조점을 두는 반면에, 후자는 “메시지나 말하여지는 것”의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누가복음 1장 37절의 문맥 역시 이 단어를 “말씀”으로 해석함이 더 타당함을 보여준다. 전치사 구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임이 분명하며, 명사 ῥήμα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일”이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을 것이다”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또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불가능이 없을 것이다.”<sup>37)</sup>

37) 미래 동사의 의미를 위해서는 아래를 보라.

문맥 속에서 더 자연스러운 것은 첫 번째 번역이다. 따라서 이 단어의 뜻은 여기서 “말”로 번역함이 더 타당하다. 눅 1:37의 전체 문장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because no word from God will be impossible [disabled/made void/ disempowered/ emptied of its power]). 이러한 번역은 38절에 있는 명사 ῥῆμα에 의해 힘을 얻는다. 두 문장은 하나의 짝을 이루는 것처럼 드러난다.

37절: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8절: “당신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이다”

이 두 구절에서 ῥῆμα는 말하여 진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45절의 엘리사벳의 반응과도 잘 연결된다.

45절: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리라”<sup>38)</sup>

다시 한번, ῥῆμα의 이중 의미를 인식하면서도,<sup>39)</sup> 그 강조점이 “말하여 진 것”(message)에 놓여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2.4. 동사의 시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동사의 시제다. 모든 한글 성경은 미래 동사 ἀδυνατήσει를 현재로 해석하고 있다. 그 반면에 모든 영어 성경은 이 동사를 미래로 해석하고 있다. 이 동사를 미래로 해석하느냐 현재로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만일 현재로 하면 눅 1:37의 천사의 말이 엘리사벳의 잉태에 좀더 초점이 맞추어지고 미래로 하면 마리아의 잉태에 초점이 맞추어 지기 때문이다. 언뜻 보기에 이 문장이 직접 받는 것은 바로 앞 구절에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인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을 바로 앞의 엘리사벳의 잉태 사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인용되고 있는 창 18:14의 문맥도 나이 많아 임신하지 못

38) 이 구절은 『개역 한글판』과 개정판의 번역이 다르다. 접속사 ὅτι의 해석을 전자는 이유절을 이끄는 “왜냐하면”을 해석하고, 후자는 동사의 내용을 설명하는 절(영어의 “that”)로 번역하고 있다. 영어 성경도 둘로 번역이 나뉘어진다. 그리스어 문법상 두 번역 모두 가능하다.

39) 이 명사가 유아기 기사에서 갖는 이중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Brown의 *The Birth of the Messiah*, 405, 477을 보라.

하는 여성인 사라의 잉태에 관한 것으로 엘리사벳의 잉태에 대한 언급이라는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다. 이 경우에 미래 동사의 사용은 어색해 보인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 예를 들면, Porter는 이 미래가 시간 개념 없는 미래(timeless future)라고 설명한다.<sup>40)</sup>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1장 36절의 엘리사벳의 잉태에 관한 내용은 마리아의 질문 곧 “이것이(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sup>41)</sup>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마지막 부분이다. 그것에 대해 천사 가브리엘이 대답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를 확증하기 위해 하나의 예로 엘리사벳의 잉태 사실이 제시되었을 뿐이지 그것이 천사의 대답의 중심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된 한 예에 불과하다. 이것을 알아보기 쉽게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마리아의 질문- 아직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합니까?(34절)**

**천사의 대답-** 성령이 임하실 것이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 올 것이다(35절)

**예 제시-** 이것은 가능한데 그 증거로 나이 많아 아이가 없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36절)

**대답의 결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왜냐하면”은 앞 구절의 엘리사벳의 노년의 잉태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더 크게 보아 마리아의 동정녀 메시아 잉태가 가능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설명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1장 37절이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천사의 대답의 결론이라는 사실이 잘 뒷받침해 준다. 천사는

40) *Verbal Aspect*, 421-22. 이런 식의 그의 논의는 강력해 보이지만, 동사 시제와 관련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제는 원래 시간개념이 없다고 설명하려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미래 시상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눅 1:37의 미래 동사 사용에 대해서는 K. Stock의 “Die Berufung Marias(Lk 1,26-38)”, *Biblica* 61 (1980), 484-85을 보라.

41) 자신이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윗 가문의 왕이 될 아들을 장차 잉태할 수 있느냐는 마리아의 이 질문은 수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27절에 따르면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천사는 마리아의 잉태를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묘사(31절)하고 있는데, 왜 마리아가 이런 질문을 했는가는 수수께끼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V. Taylor의 *The Historical Evidence for the Virgin Birth*(Oxford: Clarendon, 1920)와 Nolland의 *Luke 1-9:20*, 53-4과 Fitzmyer의 *Luke*, 348-50을 보라. 또한 논의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저서인 J.G. Machen의 *The Virgin Birth of Christ*(New York: Harper, 1930), 145-46을 보라.

35절 중간에서 시작된 대답에서 장차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할 것을 얘기하고 그 아이가 거룩한 자라고 불리울 것을 말한 후에 확신을 주기 위해 엘리사벳의 예를 든다. 그리고 다시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돌아와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역사가 가능한 근거로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제시하며 끝을 맺는다. 그에 대한 화답으로 마리아는 “당신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소서”(38절)라고 대답하며, 다시 한번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믿은 여자는 복이 있도다”(45절)라고 언급하므로 마리아의 잉태를 강조해 주고 있다.<sup>42)</sup>

## 2.5. 작성 순서

그렇다면, 이 문장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창 18:14 LXX를 앞에 놓고, 혹은 마음에 두고, 누가는 그리스어 구약 성경을 자신의 문맥이 요구하는 까닭에 변형시킨다. 첫째로, 의문문은 직설법으로 바뀔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동사의 시제는 마리아의 미래 잉태를 강조하기 위해 미래를 요구했다. 누가는 그 문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도록 만들고 싶었으며, 이것은 그로 하여금, 창 18:14 LXX에 있는  $\text{παρὰ τῷ θεῷ}$ 를  $\text{παρὰ τοῦ θεοῦ}$ 로 바꾸게 만들었다. 그는 여기서 명사  $\text{ῥήματα}$ 에 의해 “말”이라는 의미를 의도했는데, 그 이유는 그 천사가 요한의 탄생(1:13)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둘 다를 말로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행 10:22에서  $\text{ῥήματα παρὰ σου}$ 가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말씀”(words from you)을 의미한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 하다.

## 3. 맺는 말

본 논고는 누가복음 1장 37절의 올바른 번역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전치사 구  $\text{παρὰ τοῦ θεοῦ}$ 의 올바른 해석에 있음을 발견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본문 비평을 통해 그 전치사 구의 원문을 결정했다. 전치사 구와 관련해 『네슬-알란트 27판』에 있는 본문이 원문에 가까운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그럴 경우에 이 전치사 구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의미로 쓰여야 한다. 논의의 최저 선은 누가가 이 전치사 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with God” 이나 “for God”)라는 의미를 드러내고자 했을 까닭이 없다

42) Green, *The Gospel of Luke*, 91-2.

는 것이다. 그리고 명사 ῥήμα가 이 본문에서 “말”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동사의 시제와 관련하여서도 구태여 누가 미래를 써서 현재를 나타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과 따라서 누가의 미래 사용은 의도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누가가 마리아의 미래 메시아 잉태를 가리키기 위해 일부러 사용한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누가복음 1장 37절의 문장은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because no word from God will be impossible)로 번역해야 함이 마땅하다. 개별 학자의 주석에서 이 구절을 설명하며 다른 번역과 해석을 덧붙이는 것은 가능하나, 성경 번역에서는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확실한 반증이 없는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놓고 번역,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 본문의 문법적 현상들을 그리스어의 관점에서 우선 설명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표준 새번역』(개정판)이나 『공동 번역』(개정판)과는 달리 『개역 한글판』(개정판) 성경의 번역은 눅 1:37의 원문의 뜻을 대체로 잘 드러내주고 있으며, 다만 접속사의 해석과 동사의 시제의 번역은 본 논고에서 살펴본 것에 근거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참고 문헌

- Bauer, W.,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trans. W.F. Arndt & F.W. Gingrich; rev. F.W. Gingrich & F.W. Dank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6, 1979).
- Blass, F. and A. Debruner,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trans. et ed. by Robert Fun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 Bock, D.L., *Luke 1:1-9:50*. BECNT (Grand Rapids: Baker, 1994).
- Brown, R.E., *The Birth of the Messiah: A Commentary on the Infancy Narratives in Matthew and Luke* (London: Geoffrey Chapman, 1977, rev. 1993).
- Danker, F., *Jesus and the New Age: A Commentary on St. Luke's Gospel* (Philadelphia: Fortress, 1988).
- Fee, G.D. and Epp, E.J., *Studies in the Theory and Method of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Grand Rapids: Eerdmans, 1993).
- Fitzmyer, J.A.,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Anchor Bible (Garden City: Doubleday, 1981, 1990).
- Field, F., *Notes on the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9; rep. Hendrickson, 1994).
- Green, J.B., *The Gospel of Luke*.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7).
- Jeremias, J., *Die Sprache des Lukas Evangeliums: Redaktion und Tradition im Nicht-Markusstoff des dritten Evangeliums*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0).
- Liddell, H.G. & Scott, R., *A Greek-English Lexicon* (rev. by Jones, H.S; rep. of 9th ed.; Oxford: Clarendon, 1958).
- Machen, G.J. *The Birth of the Messiah* (New York: Harper, 1930).
- Marshall, I.H., *The Gospel of Luke*. NIGTC (Exeter: Paternoster, 1978; rep. Grand Rapids: Eerdmans, 1989).
- New, D.S., *Old Testament Quotations in the Synoptic Gospels and the Two Document Hypothesis*. Septuagint and Cognate Studies 37 (Atlanta: Scholars Press, 1993).
- Nolland, J., *Luke 1-9:20*. WBC 35a (Dallas: Word Books, 1989).
- Porter, S.E.,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 Sanders, J.A., "Isaiah in Luke", *Interpretation* 36 (1982).
- Steyn, J.G., *Septuagint Quotation in the Context of the Petrine and Pauline Speeches of the Acta Apostolorum* (Kampen: Pharos Publishing House, 1995).
- Stock, K., "Die Berufung Marias (Lk 1,26-38)", *Biblica* 61 (1980).
- Taylor, V., *The Historical Evidence for the Virgin Birth* (Oxford: Clarendon, 1920).
- Turner, N., "Some Observations on the Language in the Birth and Infant Stories of the Third Gospel", *New Testament Studies* ns. 1 (1954).
- \_\_\_\_\_ "The Relation of Luke I and II to Hebraic Source and to the Rest of Luke-Acts", *New Testament Studies* ns. 2 (1955).
- Wilcox, M., *The Semitisms of Acts* (Oxford: Clarendon, 1965).

## &lt;Abstract&gt;

## The Original Text and Translation of Luke 1:37

Chang-Wook Jung

The Greek sentence in Lk 1:37 of NA27, ὅτι οὐκ ἀδυνατήσῃ παρὰ τοῦ θεοῦ πᾶν ῥῆμα, is translated by the vast majority of English and Korean versions of the Bible as follows: “Since (because or for) nothing will (shall) be impossible with God.”

The issue centers on the translation of the prepositional phrase παρὰ τοῦ θεοῦ, which means “from God.” The above translation of most versions seems to rest on two elements: 1) the preposition παρὰ with the genitive, which means “from”, has the same meaning as with the dative, which means “with”, or Greek variants containing the phrase παρὰ τῷ θεῷ, which may mean “with God”, are reliable; and 2) the translators’ decision as to the meaning of ῥῆμα results in that translation. All of them understand the noun as “thing”, and not “word”; they seem to suppose that the sentence “nothing from God will be impossible” does not make good sense. It is also noteworthy that some of the English versions and all of the Korean translations interpret the future tense of the verb to convey present time.

This study argues that the prepositional phrase in Lk 1:37 of NA27, παρὰ τοῦ θεοῦ, is the original reading and the phrase should mean “from God.”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meaning of the noun ῥῆμα is to be “word” rather than “thing” in this verse and that the future tense refers to future events. Thus, the sentence in Lk 1:37 should be translated as “No word from God will be impossible (disabled/ made void/ disempowered/ emptied of its power).”